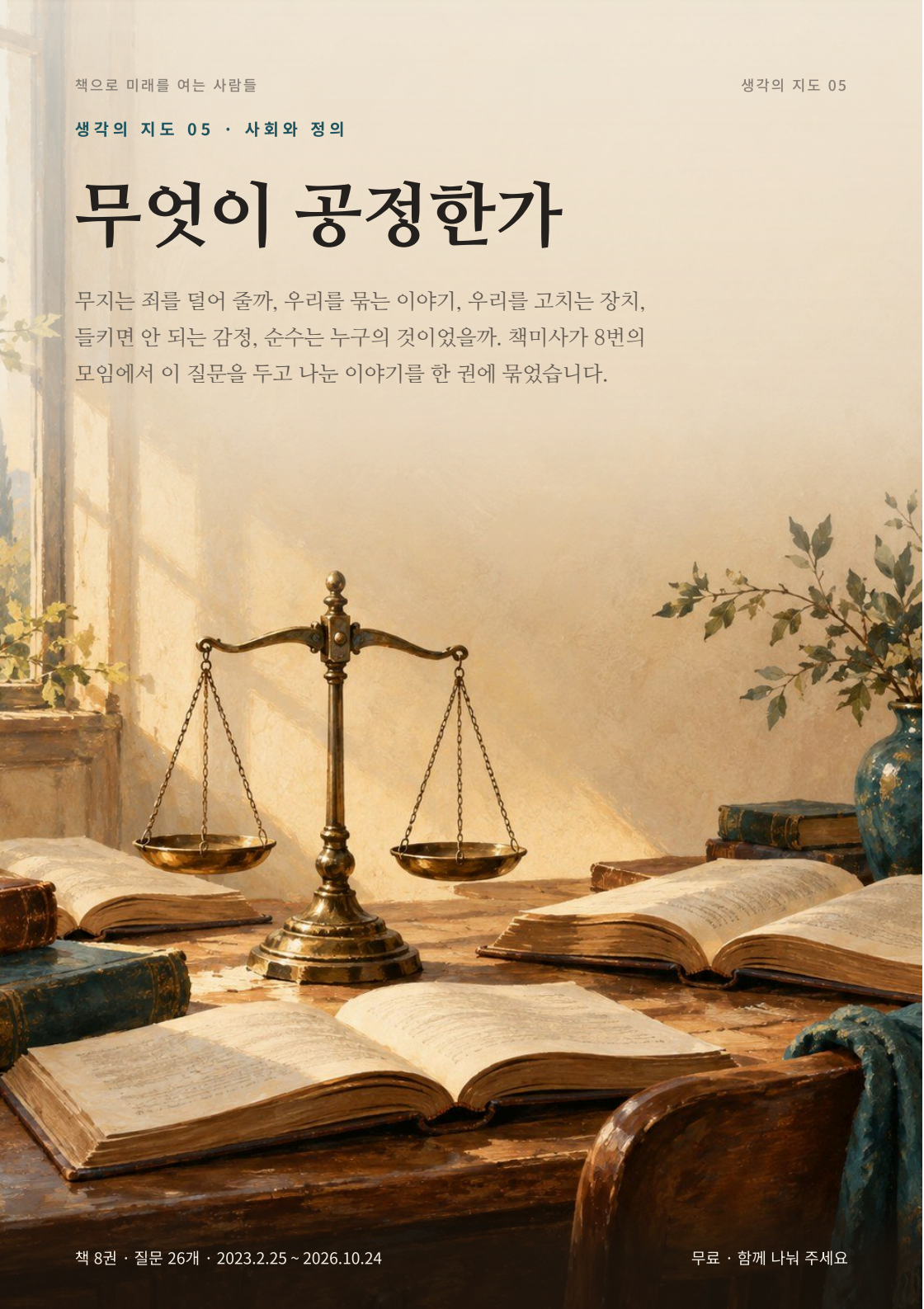
생각의 지도 05 · 사회와 정의

무엇이 공정한가

무지는 죄를 덜어 줄까, 우리를 묶는 이야기, 우리를 고치는 장치, 들키면 안 되는 감정, 순수는 누구의 것이었을까. 책미사가 8번의 모임에서 이 질문을 두고 나눈 이야기를 한 권에 묶었습니다.



책 8권 · 질문 26개 · 2023.2.25 ~ 2026.10.24

무료 · 함께 나눠 주세요

8번의 모임, 하나의 질문

모임 날짜 순서로 놓았습니다. 후기 제목이 곧 그날 붙든 물음입니다.

01 무지는 죄를 덜어 줄까 3
『책 읽어주는 남자』 · 2023.2.25 오프모임

02 우리를 묶는 이야기, 우리를 고치는 장치 4
『넥서스』 · 2025.2.6 한책읽기

03 들키면 안 되는 감정 5
『질투라는 감옥』 · 2025.2.22 오프모임

04 순수는 누구의 것이었을까 6
『순수의 시대』 · 2025.5.10 오프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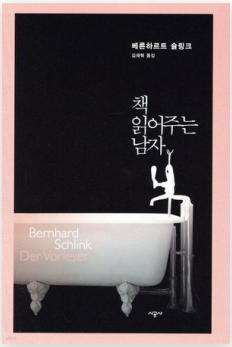
05 이웃은 어디까지일까 7
『윗집 부부』 · 2026.8.29 문학산책

06 35년의 압축기 앞에서 8
『너무 시끄러운 고독』 · 2026.9.12 문학산책

07 그는 정말 반성했을까 9
『죄와 벌』 · 2026.10.17 문학산책

08 그 사람이 아니었어도 같은 결과였을까 10
『리더는 언제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 2026.10.24 지정독서

이렇게 써 보세요. 혼자라면 쪽마다 맨 아래 질문 하나에 세 줄로 답해 보기. 여럿이라면 질문 하나를 골라 20분 이야기하기. 독서모임 첫 질문으로 그대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오프모임 · 2023년 2월 25일

무지는 죄를 덜어 줄까

베른하르트 슐링크 『책 읽어주는 남자』

베른하르트 슐링크의 『책 읽어주는 남자』를 들고 겨울 끝자락 토요일 오후에 직접 만났습니다. 각자 꼽은 최고의 장면에서 시작해 한나의 무지와 죄, 법정에서 침묵한 미하엘의 선택, 그 시대를 산 세대의 책임, 그리고 끝내 엇갈린 두 사람의 사랑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최고의 장면	앓듯이 시작된 사랑, 녹음테이프로 이어진 사랑
무지와 죄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다 풀리지 않는다
미하엘의 침묵	알고도 말하지 않은 선택
그 시대라면 나는	세대의 책임과 개인의 책임

>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휩쓸렸다 해도, 뒤늦게라도 깨달았다면 죄가 없어지지는 않아도 앞으로 나아갈 수는 있다."
>
> 그날 모임에서 나온 말

이 책으로 던질 질문

1. 배우지 못한 사람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인가?
2. 알고도 말하지 않은 미하엘의 침묵,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3. 그 시대를 살았다면 나도 같은 행동을 했을까? 모두가 그랬다면 잘못이 아닌 걸까?



한책읽기 · 2025년 2월 6일

우리를 묶는 이야기, 우리를 고치는 장치

유발 하라리 『넥서스』

유발 하라리의 『넥서스』를 한책읽기로 함께 읽었습니다. 정보와 이야기, 문서와 오류를 지나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그리고 AI에게 결정을 맡길 수 있을까까지, 두 시간 반 동안 '연결'을 이야기한 밤이었습니다.

정보는 연결한다	진실을 비추기보다 사람을 잇는 것
문서의 힘	빚은 문서를 없애야 사라진다
자정 장치	오류를 바로잡는 장치가 있는 곳
AI에게 맡길 수 있을까	결국 마지막 선택은 사람

이 책으로 던질 질문

1. 정보가 많을수록, 나는 더 좋은 결정을 하고 있을까?
2. 내 곁에는 나의 오류를 바로잡아 주는 자정 장치가 있을까?
3. 사람보다 오류가 적은 AI라면, 나는 결정을 맡길 수 있을까?



오프모임 · 2025년 2월 22일

들키면 안 되는 감정

야마모토 케이 『질투라는 감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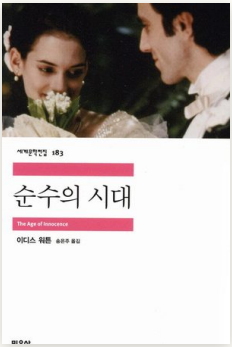
야마모토 케이의 『질투라는 감옥』을 들고 오프모임으로 모였습니다. 심리학 책인 줄 알고 펼쳤다가 정치와 정의, 철학까지 따라가게 된 책. 세 시간 동안 각자의 질투를 조심스럽게 꺼내 놓았습니다.

들키면 부끄러운 감정	느껴도 말하지 않는 것
자랑과 질투	질투를 피하는 네 가지 전략
질투와 정의	도편추방에서 롤스까지
비교를 멈추는 법	질투는 채워지지 않은 마음의 다른 이름

> "내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 질투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말하는 순간 싹이 자란다."
>
> 그날 모임에서 나온 말

이 책으로 던질 질문

1. 질투는 왜 느껴도 말하지 못하는 감정일까?
2. 질투는 정의를 바라는 마음과 어떻게 다를까?
3. 비교를 멈추려면 무엇이 채워져야 할까?



오프모임 · 2025년 5월 10일

순수는 누구의 것이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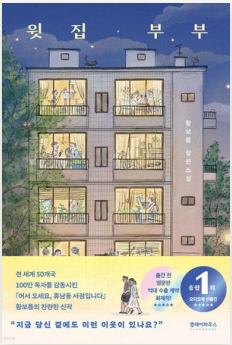
이디스 워튼 『순수의 시대』

이디스 워튼의 『순수의 시대』를 들고 봄날 오후에 직접 만났습니다. 1870년대 뉴욕 상류층의 사랑과 결혼을 두고, 메이와 엘렌, 그리고 끝내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아처를 자리를 옮겨 가며 세 시간 넘게 이야기했습니다.

메이	순진한 아내일까, 모든 걸 얻어 낸 전략가일까
엘렌	사랑보다 자유를 택했을까
결혼	사랑만으로는 하지 않는 것
순수	계산하지 않던 시절의 마음, 혹은 환경 따라 변하는 것

이 책으로 던질 질문

1. 메이는 순진한 아내였을까, 모든 걸 얻어 낸 전략가였을까?
2. 결혼은 사랑만으로 하는 걸까?
3. 순수란 계산하지 않던 마음일까, 환경 따라 변하는 것일까?



문학산책 · 2026년 8월 29일

이웃은 어디까지일까

황보름 『윗집 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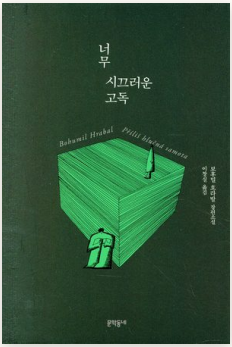
황보름의 『윗집 부부』를 두고, 책 밖의 이웃과 결혼, 세대 이야기로 두 시간 넘게 이어진 밤. 가벼운 소설이라 생각했는데 저마다의 삶이 가장 많이 묻어난 모임이었습니다.

인사 한 번 없는 옆집	이웃은 담 하나 너머일까, 마음 가까이일까
결혼, 해야 할까	세대마다 다른 대답
우리에서 나로	코로나 뒤 달라진 관계
사람을 대하는 얼굴	고뇌가 쌓인 만큼 남의 삶이 읽힌다

> "이웃은 물리적인 이웃이 아니라, 책미사 안에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른다."
>
> 그날 모임에서 나온 말

이 책으로 던질 질문

1. 이웃은 담 하나 너머의 사람일까, 마음 가까이의 사람일까?
2. 결혼, 해야 할까? 세대마다 대답은 왜 다를까?



문학산책 · 2026년 9월 12일

35년의 압축기 앞에서

보후밀 흐라발 『너무 시끄러운 고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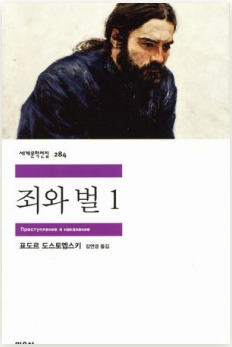
프라하 지하실에서 35년째 폐지를 압축하며 책을 건져 읽는 한탸. 짧은 소설을 두고 고독, 쓸모, 그리고 밖에서 밀려오는 변화를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펼친 책	예전엔 중간에 덮었는데, 이번엔 보였다
칙칙하지 않은 고전	늙어서 한 번쯤 살아 보고 싶은 삶
혼자 있고 싶다는 말	고독은 피하는 걸까, 지키는 걸까
거대한 압축기	변화는 늘 바깥에서 온다

> "변화는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온다. 충격이 한 번 오면 바꾸지 않을 수 없다."
>
> 그날 모임에서 나온 말

이 책으로 던질 질문

1. 고독은 피하는 걸까, 지키는 걸까?
2. 예전엔 중간에 덮은 책이, 다시 펼치면 왜 보일까?



문학산책 · 2026년 10월 17일

그는 정말 반성했을까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죄와 벌』

천 쪽이 넘는 두 권을 들고 모였습니다. 이날 가장 오래 붙든 질문은 하나였어요. 살인 뒤 라스콜니코프가 느낀 건 정말 죄책감이었을까.

소냐	초월적인 희생일까, 환경이 만든 희생일까
3부 심리전	포르피리와 라스콜니코프는 데스노트의 L과 라이토
죄책감?	리자베타를 애도하는 문장이 한 줄도 없다
반성했을까	대부분 “아니다”, 1년에서 끊긴 열린 결말

> "그는 새로운 삶이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그것을 사기 위해 비싼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도 모를 정도였다."
>
> 그날의 한 줄 · 498쪽

이 책으로 던질 질문

1. 소냐의 희생은 초월적인 것일까, 환경이 만든 것일까?
2. 살인 뒤에 라스콜니코프가 느낀 감정, 정말 죄책감일까?
3. 라스콜니코프는 끝내 반성했을까?



지정독서 · 2026년 10월 24일

그 사람이 아니었어도 같은 결과였을까

재레드 다이아몬드 『리더는 언제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총, 균, 쇠』에서 환경을 이야기하던 재레드 다이아몬드가 이번에는 '한 사람'을 봅니다. 이날 우리가 붙든 질문도 그것이었어요. 그 사람이 아니었어도 같은 결과가 나왔을까.

톡방 투표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은 잡스보다 팀 쿡
세레체 카마	그 사람 아니면 안 됐던 단 한 명
능력과 운	능력이 받쳐 줘야 운도 붙잡는다
언제 차이를 만드나	방향이 뚜렷할 때, 권한이 있을 때, 어려울 때

> "적절한 장소, 적절한 시기가 결정적 요인이었다는 답은 리더십을 자연실험이라는 과학적 방법론으로 정밀하게 추출해낸 성공의 법칙이다."
>
> 그날의 한 줄 · 351쪽

이 책으로 던질 질문

1. 스티브 잡스와 팀 쿡, 누구와 일하고 싶은가?
2. 능력과 운, 무엇이 더 중요할까?
3. 리더는 언제 차이를 만들어낼까?

같은 질문, 다른 책

같은 땅 위에서도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누군가에게는 벽이 됩니다. 지리와 도시, 역사의 상처를 따라가며 공정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이 질문의 다른 책

지리의 힘 1 · 공간혁명 · 소년이 온다 외. 홈페이지 생각의 지도 05에서 모두 볼 수 있어요.

후기 전문과 진행 자료

책마다 홈페이지 책 페이지에 후기 전문, 진행 자료, 그날의 한 줄이 있습니다.

이 질문들,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주로 토요일 밤 9시, 줌에서 만나고 가끔은 직접 만납니다. 완독 못 해도, 듣기만 하는 청강도 괜찮아요. 첫 참여는 무료, 그다음부터 모임당 5,000원.

espada4897.github.io/espada/map.html#m5